

건강 칼럼

임신 중 홍삼(인삼) 먹어도 괜찮을까

임신 중의 약물 복용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요새는 포털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요즘 임신부들은 감기약 하나도 함부로 먹지 않는다. 행여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본다.

양약들은 비교적 금기 약물에 대해 잘 알려진 편이다. DUR 등급, FDA 분류 등 나누는 방법도 다양하다.

심지어는 만저서도 안 되는 약도 안내되어 있다.

예를 들어, 탈모약의 대표주자인 프로페시아 같은 약은 DUR 일부 금기 1등급으로,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태아 형성 중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한약재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지만, 그 중 100가지 이상이 약재이자 식품이기도



송 예 은
승주한의원 의정부점 진료원장

한 '식품용 한약재'에 속해서 그 규제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사망에 따라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병 통치약처럼 팔리는 홍삼, 임신부도 복용해도 괜찮을까? 정답을 예/아니오로 따지려면, 일단은 '아니오'이다.

홍삼은 좋은 품질의 6년근 인삼을 장시간 쪄서 말린 것으로, 인삼의 학명은 'Panax ginseng'이다.

인삼의 주된 유효성분인 ginsenoside는 성 호르몬인 estradiol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체 내에서 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임신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더러, 출산 후에는 유즙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임신 중 인삼 복용이 무조건 금기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임신 중 감기약인 삼삼음(參蘇飲)은 인삼이 포함된 처

방이나, 임신부도 장기간 복용이 가능하다.

어른 감기, 소아 감기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처방이며, 주로 가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며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맞는 약이다.

인삼은 모유 수유 이후에는 오히려 기력 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산후풍의 대표적인 증상인 수족냉증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일 수 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좋은 약은 없다. 따라서 '임신 중 홍삼을 임의로 장기간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복용시 주의가 필요하다'가 칼럼의 질문에 대한 가장 알맞은 답일 것이다.

다양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개인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약, 한약재에 관한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사설

금액 1조원 넘는 전세보증사고

올 1월부터 4월 사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올해 들어 임차인이 재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들어 매달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보증 사고 1천273건 중 1천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153건이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등 인천에서는 459건 발생했다.

부평구 134건, 서구 102건, 미추홀구 87건, 남동구 85건 등이다.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0%를 훌쩍 상회했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116건)에 보증 사고가 집중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천억 원을 넘어섰다.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천279억 원으로, 올해 4개월 만에 8천144억 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천 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HUG 보증 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 1천975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천399억 원이다.

간호법 '거부권' 의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료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것은 지난 4월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뒤 두 번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 사이 갈등을 키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 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히는 법안 내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간호법안으로 인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갈등을 충분히 중재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도 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속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로 돌려보내진 간호법은 재의결이나 수정 의결, 혹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간호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석이 전체의 1/3을 넘는다. 그런 만큼,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야당이 재의를 시도하더라도 처리는 쉽지 않다.

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별도 중재안을 추진 중이다.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 강화 등을 담은 일부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한편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 단체는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독자제언

집회, 소음 아닌 공감 전하는 소리 되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그에 따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집회시위 현장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것은 고성시위로 인한 소음 고충이다. 폭력적인 집회 형태는 거의 사라지고 확성기로 인한 소음이 분쟁의 불씨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쉽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주변 주민들에게는 소음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현장에서 소음도를

일정 기준치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주간 시간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소음 기준은 65dB 이하, 최고소음도는 85dB 이하로 그리고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55~95dB 이하의 일정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품수까지 등장하면서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가는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집회 측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주변 시민과 상대를 괴롭히는 악성 소음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을 누릴 권리인 행복추구권 역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창현남원경찰서 경비직전계 경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EC 정상회의 화상 연결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의 하르파 콘서트홀에서 열린 유럽평의회(E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화상 연결을 하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데 집중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등록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